

## 2011 연세대학교 죽음 2번

1. <우선 갑의 경우 실험1과 2를 하기 직전에 배설물이라는 불결한 대상을 접했다. 실험1에서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접했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한 후 실험을 했고, 실험2에서는 실험 직전 배설물을 직접 접했다.> 실험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갑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적은 비율이 을에 비해 약 1/3로 을보다 적었다. 2. 악취와 부패와 같은 불결한 것을 피하려 하는 인간의 습성을 말하고, 이것에 죽음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는 <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불결한 배설물을 접한 후 갑에게 실행한 이 실험이 죽음이라는 속성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 1번 괄호 부분은 문장 서술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간결하게 정리하면 좋을 듯해요.

2. 2번부터 (다)를 통한 (라)의 연결이니, 문단을 나누면 형식적으로 좋겠습니다.

반면 을의 경우 실험1에서는 죽음이나 불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고, 실험2에서는 배설물을 접한 직후의 상황이 아니기에 갑에 비해 죽음에 대해 좀 더 많은 단어를 적었다. 인간에게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려는 특수성이 있다는 <가>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인간이 악취나 불결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죽음이라는 속성에 대해 좀더 생각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2에서는 배설물을 접한 직후의 상황이 아니기에 갑에 비해 죽음에 대해 좀 더 많은 단어를 적었다." 이게 왜 (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논리성이 부족합니다.